

하상주보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2년 8월 28일
제1911호

주임 신부 :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 회장 : 강세원 바오로

연령 회장 :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 703 968 3010

팩스 : 703 968 3013

주소 :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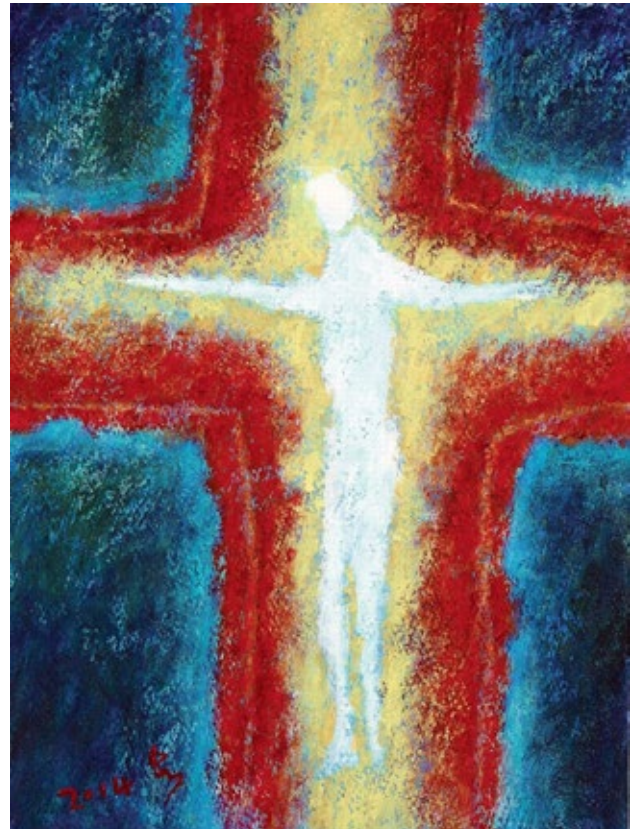
이메일 : sthasang@gmail.com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루카 14,11.13-14)



〈십자가의 신비〉, 김옥순 수녀 작

연중 제22주일 (다해)

제 1 독서 집회 3,17-18.20.28-29 | 너를 낮추어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총애를 받으리라.

화답송 시편 68(67) | ◎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이 집을 마련하셨나이다.

제 2 독서 히브 12,18-19.22-24기 |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시온 산이고 살아 계신 하느님의 도성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복음 루카 14,1.7-14 |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 ¹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 ⁷ 예수님께서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 ⁸ “누가 너를 혼인 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⁹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 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 ¹⁰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 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함께 앉아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 ¹¹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 ¹²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네가 보답을
받게 된다.
- ¹³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 ¹⁴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복음 묵상

기원후 2세기 무렵의 천문학자인 프톨레마이오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태양계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른바 천동설입니다. 그리고 약 1400년 뒤에 또 다른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프톨레마이오스의 모델을 뒤집습니다. 그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반대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른바 지동설입니다. 코페르니쿠스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관념을 뒤집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 삶의 중심이 누구인가? 당신인가 아니면 하느님인가?’ 또는 ‘당신은 다른 이들을 다스리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당신이 하느님의 다스림 아래에 살고 싶은가?’

프톨레마이오스의 체계를 따르는 이들은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합니다. 자신은 선하고 자신의 판단은 올바르다고 여기며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반면 코페르니쿠스의 모델을 따르는 이들은 이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주의 중심’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중심’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식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의 자리는 끝자리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느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곳에서 하느님의 양식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을 만나며 하느님과 같은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은 “초대”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아홉 번이나 되풀이됩니다. 이 단어의 성경 원어는 ‘칼레오’, 곧 ‘부르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부름받은’ 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첫자리가 아니라 끝자리로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정용진 요셉 신부>

프란치스코 교황성하의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2022년 9월 1일) 담화

“저의 주님, 주님의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찬미받으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피조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는 올해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의 주제이자 초대입니다. 교회 일치적 기념의 시기는 9월 1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시작하여 10월 4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에 끝납니다. 이 시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고자 함께 기도하고 일하는 특별한 때입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는 방법을 배우면, 우리는 피조물이 내는 목소리에서 일종의 불협화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사랑하는 우리 창조주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공동의 집에 대한 우리의 착취에 슬퍼하는 비통한 호소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창조 시기에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위대한 대성전 안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모두 함께 주님께 찬양의 노래를 바치는 수많은 피조물로 이루어진 “우주의 위대한 합창” 을 즐깁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찬가에 우리도 동참합니다.

“저의 주님, 주님의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찬미받으소서”(피조물의 찬가 참조).

시편 저자의 노래에 함께합니다.

“숨 쉬는 것 모두 주님을 찬양하여라”(시편 150,6).

안타깝게도, 이 아름다운 노래에는 비통에 찬 울부짖음이 따릅니다. 또는 더 나아가 비통한 울부짖음의 합창이 따릅니다. 먼저, 우리의 누이이며 어머니인 지구가 울부짖습니다. 지구는 우리의 소비주의적 만행의 희생양이 되어 흐느끼며 우리의 남용과 지구의 파괴를 멈추어 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울부짖는 다른 피조물들도 있습니다.

창조 사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중심성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자의적인 인간 중심주의” (『찬미받으소서』, 68항)에 휘둘러 수많은 생물종이 멸종하고 있고, 그들의 찬양 노래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울부짖고 있는 가장 가난한 이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기후 위기를 접하게 되고, 점점 더 극심해지고 빈번해지는 가뭄, 홍수, 허리케인, 혹서의 영향을 더욱 심각하게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형제자매인 원주민들도 울부짖고 있습니다. 경제 이득만을 추구한 결과로 원주민들은 선조들의 땅을 모조리 침략당하고 파괴당하였으며, “저항하는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울라고 한(로마 12,15 참조) 바오로 성인의 권고를 마음에 새겨 피조물의 비통한 호소에 우리도 함께 읊시다. 이 호소를 듣고 행동으로 응답하여 우리와 미래 세대들이 피조물이 부르는 희망과 생명의 아름다운 노래 안에서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게 합시다.

〈전문 보기 : <https://cbck.or.kr/Notice/20220720?gb=K1200>〉

목상

-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써 시작하고
- 기도로써 마무리하십시오.
- 마더 테레사
-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써 시작하고
- 기도로써 마무리하십시오.
- 하느님께 어린이와 같이 다가가십시오.
- 기도하기가 어렵게 여겨지면 이렇게 아뢰십시오.
- 오십시오, 성령님
-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 저를 이끄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1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 일시 : 9월 10일(토) 오후 7:30
- 한가위를 맞아 먼저 세상을 떠나신 조상, 부모, 친척, 친지들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가 봉헌됩니다. 합동 위령미사 예물을 봉헌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세요.

2 루카회 월례회의(60대 본당 남녀 교우)

- 일시 : 8월 28일(일) 오전 11:30 (B-3,4)

3 요한회 월례회의(50대 본당 남녀 교우)

- 일시 : 8월 28일(일) 오전 11:30 (B-1,2)

4 KoC 월례회의

- 일시 : 8월 28일(일) 오전 11:30 (A-1)

5 병자 영성체

- 일시 : 9월 2일(금)
- 신청 : 조영인 요셉 (703) 819-8138 또는 사무실 (703) 968-3010
- 8월 31일(수)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토요일 신심 기도 및 미사

- 일시 : 9월 3일(토) 오전 10:30(첫 토요일 신심 미사)
- 파티마 사도직 기도회 : 오전 9시
- 토요일 신심 미사에 함께해 주시기를 청하며, 토요일 새벽 미사는 없습니다.

7 구역 임원 교육

- 일시 : 9월 4일(일) 오전 11:30 (B-1,2)
- 구역 임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8 성모회 월례회의

- 일시 : 8월 28일(일) 오전 11:30 친교실
- 성모회는 자매님들의 모임입니다. 자매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문의 : 박 소피아 성모회장 (703) 969-8954

9 하상 성인학교 2022년 가을학기 안내

- 일정 : 9월 13일(화) - 12월 9일(금)
- 등록 : 8월 28일(일), 9월 4일(일), 9월 11일(일) 오전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등록금 : \$60 (점심 없음)
- 안내서 및 신청서 : 성당 입구 주보대에 있습니다.
- 기타 세부 사항은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김명희 율리야나 교장 (703) 217-2775

10 하상 한국학교 교사 모집

- 사랑과 열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 문의 : 김정선 교감 (571) 217-8941 hasangkoreanshcoolva@gmail.com

11 가톨릭 성서모임 2022년 가을학기 그룹원 모집

- 가톨릭 성서 모임은 성서를 함께 읽고 묵상을 나누며,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생활화할 그룹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 대상 : 청년 (19세 - 39세) / 아버지 (40세 이상)
 - 공부 기간 : 15주 (주 1회 2시간)
 - 신청 방법 : 청년 - bit.ly/spccbln2022f 아버지 - bit.ly/cblm2022f
 - 공부 과정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
 - 신청 마감 : 9월 4일까지 • 등록비 : \$30
 - 문의 : 청년 대표 - 강동철 로베르도 (571) 432-9950 아버지 대표 - 신상희 글라라 (703) 399-4768

12 주일학교 등록 안내 (K-12th)

- 2022 - 2023 주일학교 등록을 하상관 로비에서 받고 있습니다.
- 신청 : 8월 21일(일) - 8월 28일(일) 2시 미사 전, 후
- 등록비 : 한 자녀 - \$100 / 한 가정 두 자녀 - \$180 / 한 가정 세 자녀 이상 \$200
- 주일학교 개학은 9월 11일(일)입니다.
- 문의 : CCD 윤정 보일 (703) 371-3589 CYO 구아름 (703) 599-8869

13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키워줄 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문의 : 윤정 보일 CCD 교감 (703) 371-3589 구아름 CYO 교감 (703) 599-8869

14 성 정하상 바오로 성상 건립

- 본당 주보성인인 성 정하상 바오로 성인의 성상을 Fairfax Memorial Park에 세우고자 합니다. 성상 건립을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 약정서 및 납입금은 사무실에 봉헌해 주세요.
- **감사합니다!** 성상 건립 납입 금액 : \$ 5,300

15 CARITAS WONJU 명칭 변경

- 본당 Caritas Wonju(CARITAS WONJU INTERNATIONAL RELIEF, INC)의 명칭이 **Hasang Caritas**로 변경되었습니다.
- Hasang Caritass는 고국 복지후원, 아동결연 후원, 현지 후원, 해외 후원(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불우이웃 돕기 등의 후원사업을 합니다.
- 사랑과 기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은 액수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커다란 강물을 이루어 사랑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의 후원으로 복지사업을 하는 Hasang Caritas 사업에 신자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일마다 친교실(오전 8시- 오후 12시)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Caritaswonjuva.org 를 참고하세요.

16 주차장에 주차해 주세요

- 미사에 오시는 분들 중에 성당 앞 Rippling Pond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불편해하니, 주차는 꼭 성당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교무금 책정 및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 교회 유지비인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부모님들은 분가한 자녀들에게 교무금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고 책정 및 납부를 확인해 주세요. 아울러 교무금은 정성껏 제 달애, 기쁘게 봉헌해 주세요.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8월 21일(연중 제21주일)

주일 헌금	\$ 6,395.00
교무금	\$ 5,630.00
교무금(신용카드)	\$ 2,990.00
2차 헌금	\$ 2,547.00
감사 헌금	\$ 130.00
온라인 봉헌	\$ 2,290.00
합계	\$ 19,982.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정바로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 9월 1일(목) 오후 5:00-6:00
- 9월 2일(금) 저녁 8:00-9:00
- 9월 4일(일) 오전 6:00-7:00

1. 주일 강론
2. 세계 성당을 가다 : (3) 부다페스트 복되신 동정 마리아 성당
3. 한국 교회사 : (1) 목자없는 조선 땅에

교황님의 8월 기도 지향

중소기업들

중소기업들이 경제와 사회 위기 가운데에도 사업을 이어나가며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봉사하는 길을 찾도록 기도합니다.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30 PM 				
월, 목, 토	<table border="1"> <tr> <th>화, 금</th> <th>수</th> </tr> <tr> <td>• 6:00 AM</td> <td>• 11:00 AM</td> </tr> </table>	화, 금	수	• 6:00 AM	• 11:00 AM
화, 금	수				
• 6:00 AM	• 11:00 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30 PM 				